



봄 남도 여행

2025 SPRING JEOLLANAMDO TRAVEL

전남관광
JN TOUR

전남관광의 모든 것을 담은
전남관광플랫폼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설치하세요

서남부권

- 06 **목포** | 벚꽃길을 품은 벚꽃 맛집 **입암산**
- 07 **완도** | 바다와 숲이 함께 걷는 **남파랑길 완도 87코스**
- 08 **해남** | 참 좋다, 봄이구나 **설아다원**
- 09 **무안** | 자연과 문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숲 **물맛이 치유의 숲**
- 10 **신안** | 임자도의 봄 **백억원(百億園)**
- 11 **진도** | 한 폭의 그림 **운림산방**

중남부권

- 14 **나주** | 금성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한수제 물레길**
- 15 **보성** | 물명, 불명, 녹차명까지 **제암산 자연휴양림**
- 16 **화순** | 몽환적 풍경이 아름다운 **세량지**
- 17 **강진** | 다산 선생이 반한 **백운동 정원**
- 18 **영암** | 영암의 천년고찰 **도갑사**
- 19 **장흥** | 득량만 푸른바다와 조화를 이르는 **선학동 유채마을**

20 지역별 별미 | 서남부권 · 중남부권

동부권

- 24 **여수** |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든 **영취산**
- 25 **고흥** | 국내 최대 편백나무 숲이 보이는곳 **나로도 봉래산**
- 26 **구례** | 알프스가 부럽지 않은 **지리산 치즈랜드**
- 27 **순천** | 봄에 놓치면 후회하는 **조계산 선암사**
- 28 **광양** |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이자 종점 **망덕포구**

29 지역별 별미 | 동부권

북부권

- 32 **담양** | 피톤치드 가득한 휴길 **대나무생태공원 대숲 산책로**
- 33 **영광** | 질퍽질퍽 함께 걷는 황토길 **물무산 행복숲**
- 34 **곡성** | 섬진강에서의 시간 여행 **섬진강 자전거 도로**
- 35 **함평** | 함평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연생태공원**
- 36 **장성** | 봄으로 둘러싸인 장성호를 건다 **장성댐 수변길**

37 지역별 별미 | 북부권

38 한 눈으로 보는 남도 축제

“봄날의 아름다움과 따스한 햇살이 기다리는 곳
생명의 땅 전남에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봄의 설렘, 함께 떠나요

서남부권





목포

벚꽃길을 품은 벚꽃 맛집
입암산

목포 구도심과 하당 사이에 걸쳐있는 해발 122m의 아담한 산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아 주민들이 즐겨 찾는 걷기 운동의 명소이다. 입암산의 정원 숲길은 3.5km에 달하며 전라남도의 '봄에 걷고 싶은 숲길'로 선정되기도 했다.

📍 목포시 백년대로 200번길2 5(용해동)
☎ 061-270-8734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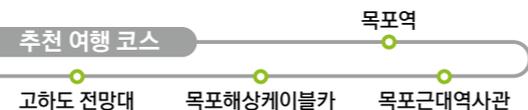


삼학도 중앙공원

삼학도 중앙공원 일원 4만5천㎡에 툇립 6만여 송이를 심었다. 봄꽃이 지면 백일홍, 코스모스 등 여름꽃과 가을꽃이 피어난다.

해상 케이블카

국내 최장길이 3.23km. 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항 스테이션을 출발, 유달산 정상부에서 'ㄱ'자로 꺾여,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 반달섬 고하도에 이른다.



완도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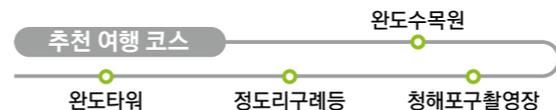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난대숲 수림대와 다도해의 수려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체험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정도리 구계등

완도항에서 서쪽으로 4km쯤 떨어진 완도읍 정도리에 있는 갯돌해변



바다와 숲이 함께 걷는
남파랑길 완도 87코스

남파랑길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잇는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이다. 3개의 코스 가운데 두 번째 코스인 남파랑길 완도 87코스는 완도해조류센터에서 시작해서 완도 해변공원, 정도리 구계등을 거쳐서 화흥초등학교에서 끝난다. 완도타워에서는 남해바다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시작점]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52 📍
☎ 1588-7417



해남

참 좋다, 봄이구나 설아다원

설아다원은 두륜산 자락에 안긴 해남의 명소이다. 이곳은 사철 언제 가도 좋지만, 생명의 기운 가득한 3월부터가 진짜라고 한다. 봄이면 차 만들기 체험장이 운영되는데 직접 차잎을 따 뒤편어볼 수 있는 차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을 통해서 마음까지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153-21
☎ 061-533-3083

여기도 가봐요!



고산윤선도유적지(녹우당)

조선조의 문신(文臣)이자, 국문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로 사랑채인 녹우당이 있다.

미항사

달마산의 암봉을 병풍으로 두른 단아한 사찰로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명상과 휴식을 취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사원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무안

여기도 가봐요!



초의선사탄생지

조선시대 차 문화의 부흥을 이끈 초의선사가 태어난 곳이다. 초의선사 탄생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문화제가 열린다. 이곳에서 전통다례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도리포해수욕장

함평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해제반도 끝에 있는 포구이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배경으로 일몰과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자연과 문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숲 물맛이 치유의 숲

이 곳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다. 특히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이나 커플의 훌륭한 여가 공간이다.

📍 무안군 무안읍 물맛이길 153-16
☎ 070-7655-5596



신안

임자도의 봄 백억원(百億園)

신안 임자도가 홍매화로 가득하다. 지난 2021년 신안군은 임자도를 '홍매화의 섬'으로 선포하고 섬 전체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홍매화 나무의 가치가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여 정원의 이름을 <백억원(百億園)>이라 지었다. 군자의 기개와 절개를 닮아 고고하고 우아한 것이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179

여기도 가봐요!



1004 뮤지엄파크

1004 뮤지엄파크는 해양복합문화단지로 자은도 해송숲이 아름다운 양산해변 50만㎡에 특색있는 테마로 꾸며져 있는 뮤지엄&공원

섬 자전거길

바다를 품은 섬 12개를 묶어서 만든 자전거길. 끝없이 펼쳐진 다도해의 풍광을 바라보며 라이딩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전거 코스



진도

한 폭의 그림 운림산방

진도아리랑마을

진도군 임회면 귀성리 아리랑마을, 드넓은 유채꽃 노란 물결 사이에서 추억과인생 사진을 담아보자.

침찰산 쌍계사 상록수림

쌍계사 쪽 계곡이 삼선암골, 진도아리랑비 쪽이 봉화골, 두 계곡 사이에 침찰산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107호)이 넓게 펼쳐진다.



운림산방은 조선시대 남종화가 소치 허련 선생이 49세에 한양 생활을 그만두고 그림과 저술로 말년을 보냈다는 화실이다. 울창한 침찰산을 배경으로 허련 선생이 조성한 이곳은 자연유산과 역사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5
061-540-6286

봄의 설렘, 함께 떠나요

중남부권

영암의 천년고찰
도갑사



금성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한수제 물레길



몽환적 풍경이 아름다운
세랑지

다산 선생이 반한
백운동 정원



독랑만의 푸른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선학동 유채마을

물멍, 불멍, 녹차멍까지
제암산 자연휴양림





나주

금성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한수제 물레길

금성산 아래 경현리와 성안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한 한수제는 크고 넓적한 바위가 많아서 나주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던 놀이터였다. 꽃 피는 봄이면 85ha의 호수에 눈발같이 날리는 벚꽃이 자랑거리다. 가족 또는 연인끼리 걷기에 좋은 나주배처럼 달콤한 코스다.

📍 나주시 경현동 116-1

여기도 가봐요!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 임업 연구기관이지만 '치유의 숲'으로 더 알려진 나주 사람들의 큰 자랑거리!

다도 도래한옥마을

도래 마을은 풍산 홍씨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고 있는 한옥 마을로 전통가옥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보성

물멍, 불멍, 녹차멍까지 제암산 자연휴양림

1991년 임금바위(제암)가 바라보이는 산 아래쪽 160만㎡가 휴양림으로 지정됐다. 따뜻한 봄 햇살,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가 눈과 마음을 맑게 한다. 특히 이곳에 조성된 '더눔길'은 유모차도 휠체어도 노약자도 모두가 자유롭게 숲을 즐길 수 있다. 차나무 가득한 봇재의 숲, 철쭉이 아름다운 일림산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제일은 제암산 자연휴양림이다.

여기도 가봐요!



강골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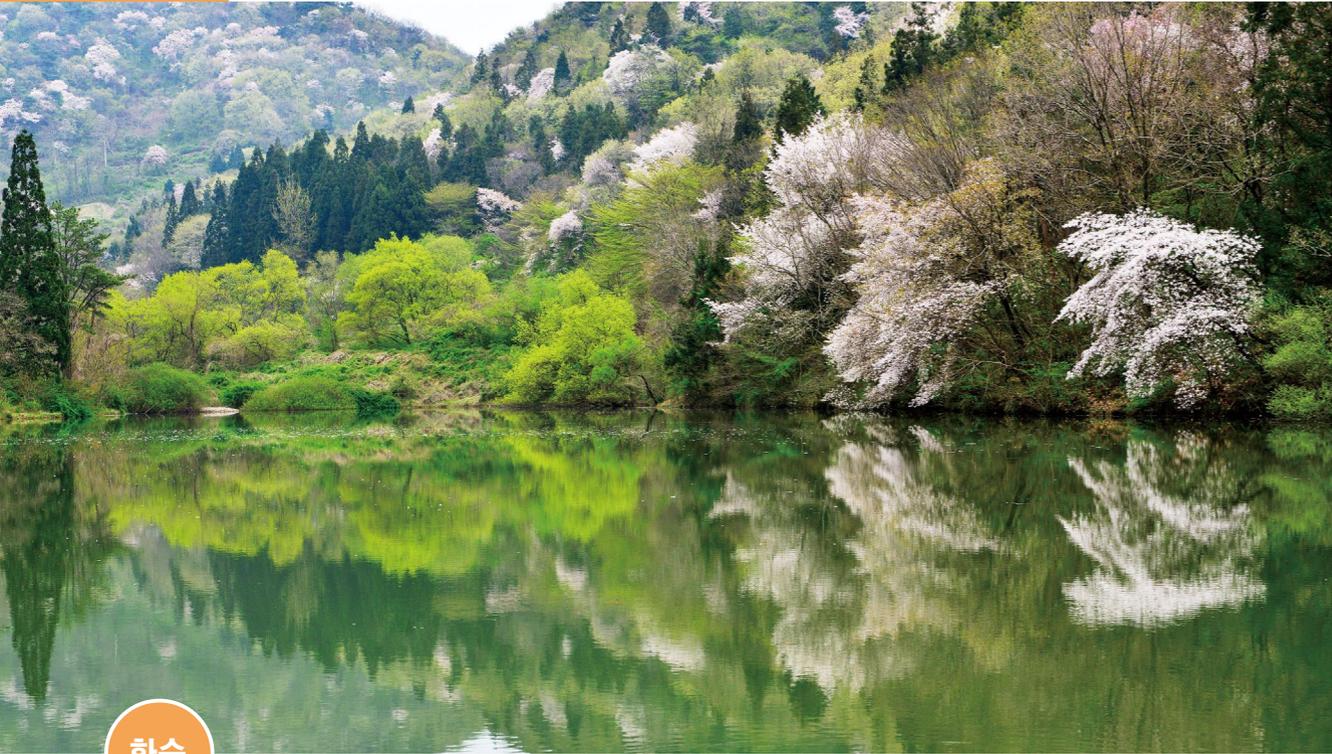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깃벌이 끝없이 펼쳐진 득량만과 오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강골마을. 전통의 맛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을 나누며 살고 있다.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

활성산성으로 들어서자마자 폭신한 흙길과 울창한 편백 나무숲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울창한 활성산 편백나무숲을 따라 걷는 길이 바로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이다.



📍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
☎ 061-852-4434



화순

몽환적 풍경이 아름다운 세량지

세량지의 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다.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잔잔한 호수에 비친 산벚꽃과 나무들이 물 위에 거울에 비추듯 그대로 투영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량지의 봄, 그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세량지를 찾는다.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97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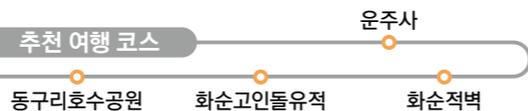


만연산 치유의 숲

소나무, 참나무 등을 주 수종으로 천연림에 조성된 치유의 숲이다.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4월부터 체험할 수 있다.

연동리 숲정기

숲정기는 마을근처 숲을 이루는 순우리말이다. 500여년 전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보를 쌓고 나무를 심었던 이곳이 흘러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



강진

다산 선생이 반한 백운동 정원

강진 백운동 정원은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 정원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며 조선 중기 선비들의 은거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백운동 정원에는 '백운동 12경'이라 불리는 12가지 색다른 풍경이 있는데 아름다운 산세와 한옥이 조화를 이루어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다고 한다.

강진군 성전면 월하안운길 100-63
061-430-3312

여기도 가봐요!



가우도 출렁다리

강진만 8개 섬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 다리는 대구면 쪽으로 연결된 '저두 출렁다리(438m, 도보 10분 소요)'와 도암면 쪽으로 연결된 '망호 출렁다리(716m, 도보 15분 소요)'가 서로 연결돼 있다.

다산초당

강진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





영암

영암의 천년고찰 도갑사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도갑사로 향하는 길가에는 벚꽃 나무가 장관을 이루어 봄이면 누구나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절이다. 이 절 근처에는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용수폭포가 있어, 등산 전후로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명상과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고요한 분위기와 정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 061-473-5122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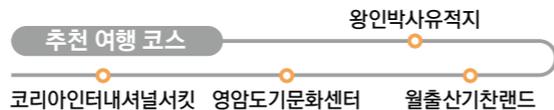


F1오토캠핑장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자동차 경기장인 F1 영암 자동차 경주장 내에 위치한 캠핑장. 사전예약을 통해 카트 경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불도 유원지

넓은 잔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 좋으며 반려견과 산책하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장흥

득량만 푸른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선학동 유채마을

회진면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선학동 마을은, 푸른 득량만 바다와 노란 유채꽃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계단식 밭에 유채꽃을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름다운 풍경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년 봄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여기도 가봐요!



편백숲 우드랜드

빼곡한 편백나무 사이에 자리를 잘 잡고 누워 보면 상쾌하게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장흥다원

장흥에서 가장 넓은 10만 평 규모의 자생 야생차밭. 야생차잎으로 전통 수제다발을 고수하며 청태전, 황차, 녹차 등을 정성껏 만든다.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061-863-7071



목포 먹갈치 구이·조림

제주에 은갈치라면 목포는 먹갈치다. 바다의 해류를 따라 설치된 그물로 잡힌 먹갈치는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얼큰하고 칼칼한 먹갈치 조림과 두툼하고 보들보들한 먹갈치 구이, 둘 다 좋다.

완도 전복술밥

전복의 고장 완도! 오독오독 쫄깃쫄깃한 전복 식감에 바다 내음이 녹아든다. 특히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전복술밥, 양념간장에 속속 비벼서 먹는다. 6천 년 전 신석기 시대 흔적으로 완도 사람들은 전복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해남 닭코스 요리

해남 8대 진미 가운데 첫 번째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닭 코스 요리’, 막 잡은 토종닭 육회, 매콤한 양념의 닭 주물럭, 오븐에 구운 닭구이, 한약재를 넣고 푹 끓인 닭백숙 등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태어난다.

무안 짬뽕 삼겹살구이

몽탄면에서 유명한 짬뽕 삼겹살구이. 짬뽕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양 날개 사이에 낀 석쇠를 앞뒤로 뒤집다 보면 짬뽕향을 가득 담은 삼겹살 구이가 된다. 얇은 삼겹살에 칠게장을 찍어서 양파김치를 곁들여 먹는다.



신안 짱뽕어탕

짱뽕어는 갯벌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그만큼 신안의 갯벌은 안전지대라는 의미이다. 생김새는 못생기고 희한하지만 뜨겁고 진한 짱뽕어탕은 기혈을 풀어주는 손꼽히는 보양식이다.

진도 대파 김치

진도 대파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서 연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 진도 사람들은 대파를 불에 구워 먹기도 하는데 단맛이 더 살아난다고 한다. 파의 녹색 부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겨준다.



나주 나주곰탕

우시장이 열리는 날, 소의 부산물을 넣고 끓이는 국밥은 사람들의 주린 배를 든든히 채워줬다. 나주곰탕은 양지머리를 푹 고아 기본 국물을 만들고, 양지, 사태, 목살과 머리 고기를 넣고 다시 삶으면 국물이 다시 맑아지며 깊은맛이 더해진다.

보성 바지락 회무침

보성 울포는 바지락으로 유명하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에서 6월까지가 제철인데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바지락으로는 무엇을 요리해도 다디달다. 바지락을 넣은 뽕안 국물도 좋고, 달달한 매콤함이 범벅된 회무침도 좋다.



화순 흑두부 보쌈

흑염소와 흑두부, 다슬기 등 화순에서 생산되는 블랙푸드는 청정 지역 화순의 자랑거리다. 특히 화순은 예로부터 토질이 좋아 질 좋은 콩이 많이 수확되기 때문에 회색빛이 도는 흑두부의 맛이 일품이다.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하는 흑두부 보쌈은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 퓨전 요리이다.

강진 주꾸미 샤브샤브

강진 마량항 가까운 바다에서는 주꾸미가 많이 잡힌다. 주꾸미 샤브샤브는 살짝 익혀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봄 주꾸미의 백미는 하얀 밤알이 가득한 머리 부분이다. 미나리와 냉이 같은 봄 향기 가득한 봄나물과 상싱한 주꾸미가 어우러지면 입안이 행복하다.



영암 독천 갈낙탕

전남 영암의 대표 음식 ‘갈낙탕’! 낙지를 끓인 것을 ‘연포탕’이라 하고, 낙지와 소갈비를 함께 넣어 끓인 탕을 ‘갈낙탕’이라 한다. 서남해안의 청정갯벌에서 자란 낙지가 맛의 진수이다.

장흥 장흥 삼합

깊은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탐진강 덕분에 사람보다 먹거리가 더 넘쳐난다는 장흥, 깊은 산속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 표고버섯과 득량만이 키운 키조개, 그리고 장흥 한우가 어우러져 장흥 삼합을 만들어낸다.



봄의 설렘, 함께 떠나요

동부권





여수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든 영취산

여수 동북쪽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진달래 군락지이다. 예로부터 신령스럽기로 알려져 기우제나 치성을 드렸던 산이다.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산 중턱에서부터 정상까지 5~20년생 진달래 군락지가 형성돼 있어서 마치 분홍색 물감을 부어놓은 듯하다. 진달래가 만개하는 4월 첫째 주가 진달래꽃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다.

여수시 상암동, 호명동, 중흥동, 적량동, 월내동에 걸쳐 있는 산

여기도 가봐요!



여수 갯벌 노을마을

호젓한 바닷가 마을로 여자만 앞에 위치한다. 일몰이 매우 아름답다.

여수 수산시장

사계절 언제 와도 제철 맞은 해산물이 넘쳐나는 오감만족 수산시장!



고흥

여기도 가봐요!



연흥도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이 있고, 담장을 캔버스 삼은 그림과 조형물이 길목마다 여행객을 반기는 섬

천등산

다도해 풍광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철쭉 명소



국내 최대 편백나무 숲이 보이는 곳 나로도 봉래산

고흥반도 끝자락에 섬, 외나로도에 위치한 봉래산의 삼나무 숲길은 사철 청정함을 만끽하기 위해서 산행객들이 모여든다. 또한 봉래산 편백나무는 수령이 100년 이상, 키가 30m에 이르는 거목으로 삼림욕을 하기에 제격이다. 봄엔 '황금 술잔'이라고 일컫는 '복수초'가 온 산을 노랗게 물들인다.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산244-2



구례

알프스가 부럽지 않은 지리산 치즈랜드

1979년 젓소 두 마리로 시작했던 초원 목장. 2012년 체험 목장 지리산 치즈랜드를 건립하면서 지금은 130마리의 젓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봄빛 가득한 푸르른 초원과 호수가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연상케 한다. 거기에다 3월 봄이 되면 수선화가 만개해 마치 노란 물결이 파도치는 듯,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0507-1318-2587

여기도 가봐요!



쌍산재
200년 역사를 가진 고택. 한옥과 한옥 사이를 메우는 넓은 마당과 숲에서 깊은 여유가 느껴진다. 그 고택에 매화가 아름답게 피었다.

운조루
조선 시대 낙안군수를 지낸 류이주가 1776년에 완공했다는 운조루 고택. 운조루 마루에 앉으면 주변 산 능선이 기와 너머로 보인다.



순천

여기도 가봐요!



와온해변
해룡면 상내리 와온마을에 있다. 아름다운 낙조 풍경이 마음까지 파고든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보잘것없고 천대받던 것들이 지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되고, 조상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돼 있다.



봄에 놓치면 후회하는 조계산 선암사

조계산은 선암사와 송광사를 품고 있다. 조계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선암사, 서쪽에는 송광사가 있다. 선암사는 봄에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하는데, 3월쯤에 선암사 경내에 돌담을 따라가다 보면 수령 350년에서 650년에 이르는 2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061-754-5247



광양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이자 종점 망덕포구

섬진강물이 녹고 봄이 오는 길목인 망덕포구, 옛날엔 섬진강을 거슬러 다압, 구례, 곡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다. 아름다운 풍광과 먹거리 외에도 한국의 역사가 아련하게 묻어나는 공간이다. 봄이 오는 길목, 망덕포구로 봄 마중을 떠나보자.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061-797-3333

여기도 가봐요!



백운산자연휴양림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킬 백운산 치유의숲

광양와인동굴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예술공간



여수 새조개 샤브샤브

겨울에는 여수 '새조개 샤브샤브' 다. 여수 새조개 샤브샤브는 쫄깃한 새조개와 달콤한 시금치, 버섯이 함께 나오는데, 그 조화가 일품이다. 조개 특성상 오래 익히면 질기므로 15초 안팎으로 살짝만 데쳐야 아들아들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고흥 녹동향 정식

자극적인 메뉴에 지쳤다면 집밥 같은 푸짐함, 소박한 분위기에 편안한 한 끼를 먹어보자. 꾸덕꾸덕 반건조한 생선찜과 함께 10가지도 넘는 밑반찬이 나오지만, 어느 하나 허들지 않는다.



구례 다슬기 수제비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로 신선하게 끓여 내는 다슬기 수제비. 간에 좋은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연한 초록빛 다슬기 육수에 시원하게 끓여 낸 수제비는 해장국으로도 제격이다.

순천 송광사 산사음식

순천에는 조계산 아래 선암사와 송광사 등 유명 사찰이 있고 그 사찰 주변으로 여러 산사 음식점이 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산사 음식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자연이 주는 약수, 고로쇠! 도선국사가 좌선 후 무릎이 펴지지 않았는데 고로쇠를 먹고 곧바로 일어섰다는 설화가 전해지면서 골리수(骨利水)라고 불렸다. 백운산 고로쇠는 맑고 깨끗하며 단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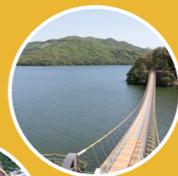
봄의 설렘, 함께 떠나요

북부권

질푼질푼 함께 걷는 황톳길
물무산 행복숲



영광



봄으로 둘러싸인 장성호를 건다
장성담 수변길

장성

담양



피톤치드 가득한 흙길
대나무생태공원 대숲 산책로

곡성

함평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연생태공원



함평



섬진강에서의 시간 여행
섬진강 자전거 도로



담양

피톤치드 가득한 휴길 대나무생태공원 대숲 산책로

울창한 대숲 안으로 들어서면 온통 초록 세상이다. 햇빛조차 비집고 들어오기 힘들 정도이다. 금성산성 자락 대나무 생태공원 안으로 피톤치드 가득한 대숲 산책로에 휴길을 만들었다. 길을 가만히 걷기만 해도 좋고, 바람이 댓잎을 흔드는 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다.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35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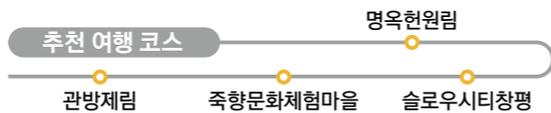


담양 소재원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있는 조선전기 문신 양산보가 조성한 정원.

LP음악충전소

담양에서 꼭 들러야 할 힙플레이스, 낭만 가득한 LP음악충전소



영광

여기도 가봐요!



법성포

전남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영광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한 굴비의 산지

칠산타워

칠산앞바다를 바라보며 111m 우뚝 솟은 영광칠산타워.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질푼질푼 함께 걷는 황톳길 물무산 행복숲

영광은 바다처럼 매력적인 산과 숲을 품고 있다. 물무산 뒤편에 맹발 황톳길과 행복숲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곳이다. 특히 행복숲에는 두 가지 황톳길이 있는데 하나는 질푼하고 또 하나는 마른 황톳길이다. 물무산의 행복숲은 봄에 꼭 걸어봐야 할 영광의 대표 산책로이다.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19
061-350-5779



곡성

섬진강에서의 시간 여행 섬진강 자전거 도로

매화향 흠날리는 봄날에는 곡성 섬진강 자전거길을 달려보자. 푸르고 너른 섬진강은 언제 봐도 가슴이 뵙 뚫릴 만큼 시원하다. 그 섬진강 변으로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농로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박하고 편안하다. 꽃길과 물길 사이, 봄으로 달려보자.

📍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 자전거대여)
☎ 061-362-4186

여기도 가봐요!



섬진강 도깨비 마을

이 마을은 도깨비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아이들이 즐겨워하는 이색 체험 공간이다.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도깨비 숲길을 산책할 수도 있고 도깨비 공연도 볼 수 있다.

괘일산

괘일산은 해가 산에 걸렸다는 뜻으로 괘일산 주릉의 암봉에 서면 천길 바위 벼랑이 까마득하여 조망이 좋다.



함평

함평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은 사람과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놓은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특히 봄에는 동식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방문객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여기도 가봐요!



안악해수욕장

백사장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해수욕뿐만 아니라 낭만적인 해넘이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함평생활유물전시관

학생들은 선조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어른들은 유년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곳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1398-77 📍
☎ 061-320-3530



장성

봄으로 둘러싸인 장성호를 건다
장성댐 수변길

잔잔한 물결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장성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댐 준공으로 생긴 호수인데 그 길이가 무려 7km나 된다. 호숫가 주위에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길은 봄날 가족과 함께 걷기에 딱 좋다.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155-7

여기도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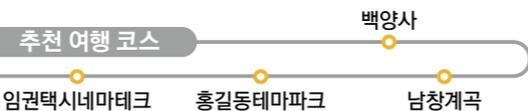


필암서원

호남 지방의 학문과 선비 정신을 잇는 대표적인 고장 장성.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이다.

장성편백치유의숲

국내 최대 180만 평 편백나무숲. 피톤치드의 상쾌함애 '치유의 숲'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담양 대통밥

대나무의 수가 전국 최대 규모인 담양의 대표 음식이다. 대나무 통 속에 쌀과 은행, 밤, 대추, 콩, 호두 같은 곡물 등을 넣어서 한지나 천 같은 덮개로 덮은 후 찌낸 밥. 몸에 좋은 곡물이 들어가 건강식으로 좋다.

영광 간장게장

영광 지역 전통 조리법으로 만든 천연 간장을 사용한다. 신선하고 살과 알이 꼭 찬 좋은 '영광 게'와 '천연 간장'이 만나서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내 찾는 사람이 많다.



곡성 토란탕

섬진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곡성! 이 곡성은 우리나라 제일의 토란 생산지이다. 토란은 포근포근한 식감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더해져 반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맛이다.

함평 천지 한우

함평 천지한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섬유질 사료, 발효 사료를 제조하여 사육하기 때문에 고기의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담백하다. 육회 비빔밥과 함께 맛의 하모니를 이뤄낸다.



장성 추어탕

장성은 옛날부터 추어 같은 민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맛이 좋았다. '황룡강 물천어'는 임금님 진상품이었다. 미꾸라지에 우거지와 된장, 들깨 넣은 들깨가루의 고소함까지... 추어탕 한 그릇 정도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한눈으로 보는 남도축제

3월

광양	매화축제	3. 7. ~ 3. 16.
장흥	정남진 난꽃축제	3. 7. ~ 3. 8.
신안	섬 홍매화축제	3. 7. ~ 3. 9.
구례	산수유꽃축제	3. 8. ~ 3. 16.
신안	섬 수선화축제	3. 21. ~ 4. 13.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	3. 22.
무안	돼지랑 세발남루 축제	3. 28. ~ 3. 29.
구례	300리 벚꽃축제	3. 28. ~ 3. 31.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3. 28. ~ 3. 30.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	3. 29. ~ 3. 30.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3. 29. ~ 4. 1.
영암	왕인문화축제	3. 29. ~ 4. 6.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3. 29. ~ 4. 20.
보성	보성벚꽃축제	3. 30. ~ 3. 31.

4월

목포	유달산 봄축제	4. 5. ~ 4. 6.
나주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4. 5. ~ 4. 6.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4. 5. ~ 4. 13.
신안	전국새우란축제	4. 15. ~ 4. 20.
화순	화순 꽃강길 축제	4. 17. ~ 4. 20.
신안	세계 김밥페스타	4. 19. ~ 4. 20.
신안	섬 간재미 축제	4. 19. ~ 4. 21.
함평	나비축제	4. 25. ~ 5. 6.
신안	1004 피아노섬 축제	4. 26. ~ 4. 27.
신안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4. 27.
담양	봉산팔기축제	4월 중
담양	용면추월산벚꽃축제	4월 중
구례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4월 중
무안	유채꽃 축제	4월 중
진도	보배섬 진도 봄꽃축제	4월 중
신안	섬 툄립축제	4월 중
광양	천년동백축제	4월 중
광양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4월 중

5월

여수	거북선축제	5. 2. ~ 5. 4.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5. 2. ~ 5. 5.
장흥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5. 2. ~ 5. 6.
보성	보성다향대축제	5. 2. ~ 5. 7.
해남	공룡대축제	5. 3. ~ 5. 5.
고흥	우주항공축제	5. 3. ~ 5. 6.
장성	황룡강홍길동무꽃길축제	5. 10. ~ 5. 11.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5. 16. ~ 5. 25.
신안	퍼플섬 라벤더축제	5. 16. ~ 5. 25.
신안	삼막 예술축제	5. 17. ~ 5. 18.
신안	돈나무꽃 축제	5. 23. ~ 5. 25.
영암	마한문화축제	5. 23. ~ 5. 25.
신안	퍼플섬 버들마편초축제	5. 23. ~ 8. 3.
고흥	녹동바다불꽃축제	5. 29. ~ 6. 1.
영광	법성포단오제	5. 30. ~ 6. 1.
무안	황토갯벌축제	5월 중
진도	대한민국 진돗개 페스티벌	5월 중
신안	섬 홍어축제	5월 중
신안	섬 낙지축제	5월 중
신안	섬 갯다리축제	5월 중
신안	옥도 작약축제	5월 중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5월 중
담양	대나무축제	5월 중



